

# 카폰 및 휴대용 전화 시장동향

## 카폰 및 휴대용전화 시장 동향

카폰 및 휴대용전화의 보급이 快調의 페이스로 신장하고 있다. 이미 국내(日本) 보급은 70万台를 돌파했다. 금년에는年間 40万~50万台의 보급은 확실시 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확대, 휴대용전화기의 콤팩트化, 요금인하 등 카폰 및 휴대용전화의 보급 확대 요소는 많다. 물론 카폰 및 휴대용전화의 편리함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90年代는 이동통신의 時代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기동은 뛰니 뛰니해도 휴대용전화이다. '90年代를 대표하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으로써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소비자가 얻게되는 메리트 外, 통신단말기기 업계에 있어서도 매력이 넘치는 시장이다. 각 메이커가 모두 대응하고 있다. 自由化까지는 아직 2年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벌써 商戰은 自由化되고 있다. 한편 일본뿐만 아

니라, 해외시장도 확대일로로 걷고 있다. 歐美를 비롯하여 아시아地區에서도 의욕적인 상담이 추진되어 그 성과도 착실히 나타나고 있다. 현지생산을 추제로 Global한 활동이 세계의 유명 메이커에 의하여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전화도 마야호로 고정식 통신형태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사용하는 사람의 이동범위가 좁으면 코드리스 폰 넓을 경우나 자동차에서 사용하게 되면 카폰 및 휴대용전화(셀룰러 전화)로 옮겨지고 있다. 카폰 및 휴대용전화의 수요가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미국 AT&T가 1964년 개시

셀룰러 전화 서비스가 개시된 것은 1964年美國 AT&T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후 1972년에는 독일도 개시했다. 日本은 1979年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후 英國이 1985년부터 노르딕諸國이 1981년부터, 서비스는 세계로 확대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한국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꽤 진행이 빠른 나라이다.

이와 같은 셀룰러 전화의 보급확대를 겨냥하고, 機器 메이커의 대응은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선두기업 Motorola

無線은 美國 Motorola가 선두기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셀룰러전화도 Motorola가 발전에 커다란 힘을 발휘했다. 美國 시장은 Motorola와 존슨(현재는 철퇴), 沖電氣工業이 최초의 머신을 제공(試作), 실용은 Motorola와 沖電氣를 중심으로 우선 개시하고, 그후 캐나다의 노바텔, 日本으로부터는 松下通信, 日本電氣, 富士通, 三菱電氣, 東芝, 日立, 日本無線, UNIDEN, SHINTOM, Kyoc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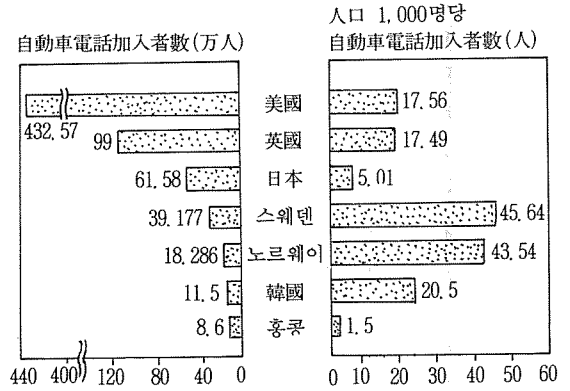
NCC 2社(계열)도 NTT 대항기를 투입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디지털기로 이전

이와 같은 경쟁은 아날로그기의 경쟁인데, 數年後에는 디지털기로 이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화성 등 유리한 디지털 셀룰러 전화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歐洲는 일찌기 GSM 방식을 표방했고, 日本은 TDMA 방식을 표방했다. 日本이 TDMA 방식을 채용하는 방향을 표방한 것은 美國이 TDMA 방식의 방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美國에서 최근 스펙트럼 확산을 사용한 CDMA 방식이 제창되어 미묘한 상황이다.

메이커는 어떤 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카폰 보급현황 (1990. 7)



日本에서는 NTT와 松下通信, 日本電氣 등의 日本메이커, 또한 Motorola, Ericsson에 의하여 실용화로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次世代 셀룰러 전화는 먼훗날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이다.

